

한전 비위관련 이첩민원 조사결과

1. 조사 배경

- 한전의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,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등과 관련된 이첩 민원 조사 실시('23.01.27.)

2. 조사 결과

- ◆ 코로나 상황에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에 위반하여 긴급성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시찰 등의 현장 방문, 일부 외유성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시
 - 국외 출장 중 일부 관광 실시, 3개기관의 부적절한 출장일정 동반수행, 지사·법인에 현지 식비 및 이동 차량 등의 경비를 부담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됨
 - 또한, 출장 중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, 국외 출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일상감사 절차 미이행 및 국외출장 규정 부적정(외유성 출장 심사대상 누락) 등
- ◆ 자택인근 또는 지인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, 사적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확인이 어려움
- ◆ 내부회의 중 정부 및 대통령 욕설 비하, 정치행위 의혹 등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, 업무시간 중 부적절한 유튜브 소개, 집무실 내 상습 흡연 등은 사실로 확인

3. 조치 계획

☐ ○○○ : 경고 요구(기관) / 통보(인사자료)

- 조사결과에 따른 비위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한 바,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‘기관경고 및 통보(인사자료)’ 조치

☐ ○○○ : 경고 요구(개인)

- 코로나 상황임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적절한 국외 출장 계획수립 등 업무수행 부적절 책임 등

☐ 시정(환수) 요구 · 개선 요구

- 현지 법인 등에게 부담시킨 식비 및 차량이용, 업추비 집행에 대해 여비 정산 등에 따라 환수(3,198천원)토록 시정 요구
- 국외출장 심사대상으로 단순 시찰, 격려 목적의 출장을 포함토록 규정개정